

교회 - 초기 그리스도 공동체 (3 부)

슬라이드 1	<p>재산을 모두 공동으로 내어 놓았다.</p> <p>사도행전에서는 서로간의 사랑이 아주 강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아무도 그들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공동의 것이었다”라고 말하지요.</p>
슬라이드 2	<p>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가진 땅과 집을 팔아, 받은 돈을 가져다가 제자들 발 앞에 놓았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는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 고 하지요.</p>
슬라이드 3	<p>오늘날 세상에는 많은 가난한 사람이 있지요. 우리는 자주 길에서 그들을 만나고 텔레비전에서 배를 타고 건너오는 많은 이민자들을 보기 때문에 그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세상에는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가난한 수백만의 가족들과 어린아이들이 있지요.</p>
슬라이드 4	<p>세상에는 매일 8000 명의 어린아이들(5 세이하)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이 것은 아주 슬픈 사실인데, 이것은 정말 우리를 울게 하는 사실인데 왜냐하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음식이 있음에도 나눔과 형제애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불평등이 존재는 것이지요. 우리 사이에 부자인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p>
슬라이드 5	<p>만약 우리가 모두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산다면 완전히 바뀔 수 있을 것이예요. 이 때문에 세상 앞에 우리가 아주 작고, 적은 인원이지만, 그리고 어린이들이지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다르게 사는 것을 시작하면서 말이예요. 이것이 우리가 2030 년까지 기아를 낮추기 위해 모든 것을 함께하기로 결정한 이유입니다.</p>
슬라이드 6	<p>Michel 은 우리에게 어떻게 재산의 공유를 살기 위해 노력하는지 이야기하였지요.</p> <p>나는 우표 수집가였는데, 수집물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표를 맞바꾸기 위해 수집하는 우편수집가들의 클럽을 만들기도 하였어요. 왜냐하면 나는 교환할 때 욕심이 많아, 아주 많은 우표를 바꾸길 원했어요.</p>
슬라이드 7	<p>내가 커서 예수님과 쯤들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사랑 안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많은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많은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우표들을 주기까지 하였어요.</p>
슬라이드 8	<p>이것을 본 나의 친구가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어찌된 일인지 설명해달라고 청하였어요. 그에게는 우표수집물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던 몇 개의 우표들을 선물하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란 것이예요.</p>
슬라이드 9	<p>그에게 나는 우표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보물을 발견했다고 설명하면서 쯤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는 이를 이해하였어요. 나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들을 살기 시작한 첫 친구가 되었어요. 두 명으로 그리고 그 다음 다른 이들도 와서 우리 동네에, 우리 본당에 한 그룹의 쯤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p>
슬라이드 10	<p>재산을 순환시키며, 우리가 주는 것을 시작하며 관대해질 때, 아주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마음 안에 단지 기쁨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다리지 않았던 그분의 섭리가 도착하게 하십니다. 사실 네가 줄 때</p>

	하느님 손을 여는 것이지요.
슬라이드 11	결국 교회는 무엇인가요? 제자들의 공동체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많은 것을 서로 공유하는데, 재산들까지도 함께 공유하지요.
슬라이드 12	함께 기도하며 빵을 떼어 나누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빵을 떼어 나누기 위해 전념하였다”고 말하는데, 이것 역시 아주 아름답지요.
슬라이드 13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아주 중요한 기도로 무엇이 있나요? (주님의 기도이지요! 함께 기도하여 볼까요?)
슬라이드 14	기도는 하느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과 이야기하는 것이예요. 우리는 기도를 바치면서 할수도 있고, 단순히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그분들께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감사해요. 당신이 저와 함께 계셔서 저는 기뻐요.” 혹은 “예수님 도와주세요.” 혹은 “나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위해, 당신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살고 싶어요”.
슬라이드 15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하루를 마칠 때 마음을 모아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분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느끼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일이지요. 기도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가족, 친구,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기억할 수 있어요.
슬라이드 16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주 기도하기 위해 모였는데, 기도하는데에 지치지 않았어요. 그 분과의 대화인 기도로 하느님과 연결되어 남아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했어요.
슬라이드 17	항상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요. 우리는 가끔 길에서 지하철에서 외롭다고 느끼는데, 비록 누군가 이를 알지도 보지도 못할지라도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요.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아주 큰 비밀처럼 말이예요. 잠깐 동안 침묵중에 각자 우리 마음에 비밀 안에 계시는 그분께 기도하여 봅시다
슬라이드 18	최후의 만찬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성체를 발명하셨지요. 빵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쪼개어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를 행하고 나를 기억하여라”.
슬라이드 19	이 때문에 전세기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기 위해 모이는 것을 계속하셨지요. 빵을 축복하고, 그 것을 쪼개어 나누는 것. 오늘날 우리도 미사 중에 (그리스도교의 몇몇 국가들은 이것을 거룩한 전례 혹은 성찬식 이라고 말하지요.) ‘성체’라고 불리는 이 축복되어진 빵으로부터 우리는 양분을 취합니다. 이 예수님과의 깊은 나눔은 우리가 그분을 안고, 그 분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 큰 밀접한 관계는 그분께 많은 것을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를 더욱 하나가 되게 하여 줍니다.
슬라이드 20	결국 교회는 무엇인가요? 제자들의 공동체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며 많은 것을 서로 공유하는데, 재산들까지도 함께 공유하지요. 그리고 자주 기도하기 위해 그리고 빵을 서로 나누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 이지요.

